

의료관광과 한국의료의 미래

Medical Tourism and the Future of Medical Practice in Korea



우 봉 식 | 의학 의료정책연구소 실장/닥스의원 원장 | Bong Sik Woo, MD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of KMA

E-mail : wbongsky@hanmail.net

J Korean Med Assoc 2009; 52(9): 844 - 846

Abstract

Medical tourism has emerged as an increasingly relevant issue worldwide and its spread is gaining greater momentum. In 2008, 750,000 Americans went overseas for medical procedures and the number is expected to reach 6,000,000 by the year 2010. The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medical tourists to Asia has seen an annual increase of 30%, to 1,590,000 from 950,000, between 2003 and 2005. Among Asian countries, Thailand, India and Malaysia have already established themselves as particularly attractive destinations for medical services thanks to low medical fees and/or tourism related price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visiting these countries for medical services has increased rapidly as they had been from the very early days of medical tourism. Following the revis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in medical practice, Korea will join the competition against existing leaders of medical tourism to gain a larger share of global medical shoppers. Some strength that Korea offers as a medical service destination are its plentiful supply of high quality physicians and medical facilities, relatively low medical fees compared to quality of service, excellent medical accessibility, and the geographical closeness to medically less developed countries. A vibrant medical tourism industry will not only create new jobs and generate a new source of income for medical professionals but also enhance the national image of Korea abroad. Another benefit of developing Korea as a destination for medical services is the maintenance of a better balance between medical supply and demand. The recent and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hospital beds and medical professionals in Korea has triggered a concern for a possible oversupply in medical services. Medical tourism is precisely the type of business that could help prevent the development of these situations. The patient's trust in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ir medical skills is a critical factor in medical decision-making. Therefore, to further develop Korea's medical tourism, policy support by the government along with meticulous preparation by health service providers would be required to build up a firm foundation. At the same time, active marketing promotions to heighten the awareness of Korea as a medical destination would be necessary to maximize the economic benefit of the nation from medical tourism.

Keywords: Medical tourism; New growth engine; Medical service; Destinations for medical service
 핵심 용어: 의료관광; 신성장동력; 의료서비스; 의료관광 목적지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질병 치료와 관련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서 의료 구매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수명 연장으로 인해 2020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13.3%인 10억명에 달하는 등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건강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어 잠재적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료관광의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McKinsey & Company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2007년 현재 600억 달러(78조)에 이르렀고, 오는 2012년까지 1,000억 달러(130조)에 이르게 되며, 의료관광객의 숫자도 2005년 1,900만명에서 2010년에는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8년에 75만명의 환자가 해외로 의료관광을 나갔으며 그로 인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21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오는 2010년에는 그 수가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의료관광객이 95만명에서 159만명으로 매년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주요 국가들은 주로 동남아시아(46%)와 남아시아(17%) 국가들이며 그 외에 일본(13%), 미국(7%), 영국(6%), 유럽(5%)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의료관광을 오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의료관광국으로는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는 낮은 의료수가와 관광비용 등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관광 중심의 외국인 환자가 조기에 급속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은 2006년에 128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9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였는데 스파, 마사지 이용객을 포함하여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750달러 정도였다. 태국보건부는 저렴한 인건비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가지고 해외 홍보에 나서서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태국의 병원들 가운데서는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Samitvej Sukumvit Hospital, Bangkok Hos-

pital in Pattaya 등 3개 병원이 주도적으로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데 128만명 가운데 43만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를 이들 3대 병원에서 유치하였으며, 그 중 25만명 정도가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반면 싱가포르의 태국과 비교해서 좀 늦은 출발을 보였지만 의료의 질이 높고, 언어 소통이 용이한 점, 서구적 문화와 사회적 규범을 가진 점, 그리고 다수의 JCI 인증 병원(15개)을 보유한 점 등으로 인해 치료 중심의 환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6년에 41만명의 환자를 유치하여 7.8억불의 수익을 올려서 1인당 1,900달러로 수익성 면에서는 태국에 비해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법의 개정을 기점으로 이들 의료관광 선도국들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 경쟁력은 우수한 의료 기술에 비해 저렴한 치료비가 강점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암이나 간암과 같은 특정 암과 장기이식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료비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국 167, 일본 149, 싱가포르 105, 미국 338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원화가치 하락을 반영할 경우 더욱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우리나라의 대형병원에 입원한 외국인 환자 627명의 평균 진료비가 1,180만원으로 2007년 일반 관광객 평균 지출액인 1,273달러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방문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35%)과 러시아(17%)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몽고(6%), 중국(4%), 일본(3%)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의료관광 성공의 성패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강점(Strength)으로는 수준 높은 의료진 및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 의료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며,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의료후진국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약점(Weakness)으로는 언어소통의 애로가

있고, 식사·숙박·교통 등에 지불하는 체재비용이 높으며,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고,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한국 의료관광의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는 의료관광 관련 법률이 개선·정비된 점, 중국·동남아·러시아·미국·캐나다 등의 의료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점, 의료관광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인 점이 있는 반면, 위협요인(Threat)으로는 태국·싱가포르·인도 등 의료관광 선도국의 시장 선점, 미국과 같은 고가 시장과 태국과 같은 저가 시장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처할 위험성, 한국의 시장 진입에 대응하여 의료관광 선도국들의 파격적인 의료비 할인 등 공격적 마케팅, 일본·중국 등 잠재적 경쟁국이 출현할 가능성 등이 있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원을 올렸을 때 제조업이 4.9명, 전체 산업 평균이 12.2명인 데 비해 의료서비스 고용 창출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의료 분야에서 단위 매출당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얘기다.

의료관광의 활성화는 이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진료 수익을 얼마 올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의료관광을 통해 한국을 알리다보면 자연스레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병상수와 의료인의 증가가 급속히 일어나면서 가까운 장래에 환자는 늘지 않고 병상은 넘쳐나는 소위 ‘공룡의 멸망’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하며 의료관광은 그러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하다.

의료는 다른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의료진과 의료 기술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와 함께 의료기관들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의료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기초를 다지고, 더불어 적극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